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설치 소송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을 계기로, 두루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에 리프트 대신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차별구제소송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가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

지평은 2019년 사회적가치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지평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로펌 중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회적가치를 경영목표로 추진하는 곳은 지평이 최초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유엔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에도 가입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두루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원으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루는 법률상담, 교육비·생계비·의료비 지원, 인식개선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에서 주로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난민가족의 입국을 위한 소송 승소

지평과 두루는 공항에 체류 중인 난민가족을 대리해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공항 환송구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을 근거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라고 판결했고, 이들은 287일 간의 공항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 사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

지평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소송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변론해왔고, 최근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평은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첫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두루는 지평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으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함께 최초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익변호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한국심의 대응

두루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대한민국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두루는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부터 본심의 참여, 위원회 위원들과의 미팅 등의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심의의 최종견해 및 권고의 이행 촉구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평과 두루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발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그 정체성에 맞는 조직을 갖추고, 원칙에 따라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호적 특성을 전제로 한 법제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협동조합법제를 검토하고,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간사로 활발한 활동

지평과 두루는 올해 ‘로펌공익네트워크’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로펌들이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올해는 사회적약자 권익옹호기관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난민 지원을 위해 난민인권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창립 5주년

두루는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5주년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제작하였고, 9월에는 두루의 이사회, 회원, 기부자, 협력 단체, 의뢰인 등 그동안 고마웠던 인연들을 모시고 5주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두루는 뜨겁고 활기차게 활동하려 합니다.